

병 원 탐 방

소록도국립병원 물리치료실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나환자를 치료하는 소록도 병원을 탐방하기 위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다. 더구나 그곳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일년동안 한 번만 개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탐방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윤선생님 덕택으로 무사히 병원을 들어가게 되었다. 기자가 찾아가는 시간이 하루일과를 마치는 때라서 물리치료실은 조용했다. 그동안 수고가 많지요. 5년여동안 생활하시면서 느낀 점도 많고 보람이 남다르다고 생각되는군요. 먼저 소록도 병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싶군요.

우리 병원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녹동향으로부터 해상 600여m 떨어진 소록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1916년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곳은 수목이 울창하면서도 물이 맑고 경치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섬이 사슴 모양을 닮았다하여 사슴섬이라고도 부르지요. 총면적은 150여만평에 달해요 일제시대부터 충우들이 피와 땀으로 정성들여 이룩해 놓은 아름다운 공원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개원기념일인 5월 11일은 병원이 개방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종교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건물은 행정을 관장하는 사무본관이 있고 환자진료를 관장하는 치료본관이 있는데 1939년도에 건축되어 최근까지 사용해오다가 50여년만인 1987년도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현대식 건물이 완공되어 개원 71주년 기념식과 개관식을 함께 가진바 있으며, 1981년부터 연차적으로 현대식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명실공히 종합병원으로서 3부교대는 물론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한다.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과 환자의 입원 현황은 원장님을 중심으로 220여명의 전 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관을 가지고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1900명이나 되는 원생들을 보살피며 나병 진료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나환자의 수용보호와 복지증진 및 지도, 음성 치유자의 자활정착을 위한 점진적으로 나병을 퇴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의 역할도 매우 중요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원생들이 물리치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물리치료실은 지상 1층에 위치하여 약 70여평의 규모로서 운동치료실, 전기치료실, 수치료실, 사무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PT사 1명과 보조자 3명이 일하고 있는데, 업무방침이라기 보다는 가족같은 분위기로 원생들을 대하며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심적고통을 위로해주고 있다고 한다. 치료실에 들어서면 가장 인상깊은 것은 「내 모습을 도로찾자, 불구를 예방하자」라는 표어가 걸려있는 것이었다. PT실은 원생들 누구나가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었다. 나균으로 인한 신경손상과 마비로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치료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실정이고, 특히 나병의 후유증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claw hand, foot drop, wrist drop, facial palsy 와 같은 기형이나 불구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예방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퇴원하여 나간 원생들이 전국 100여개나 되는 음성 자활정착촌에서 또는 일반사회에서 상당수가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니 참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내 자신이 이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보람있게 생활하며 앞으로도 계속 불우한 원생들을 위해 봉사할 생각이라고 말하시는 윤선생님의 두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